

보도일시	2025. 05. 15. (목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RE100 지원 정책협약 체결

-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 “수출 제조기업의 통상경쟁력 강화 기대”
- 위성곤 위원장, “기후가 곧 경제,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곧 수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15일(목), 한국RE100협의체(의장 정택중)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수출 제조기업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기후위 위성곤, 위진 위원장, 선대위 김성환 정책본부장, 한국RE100협의체 정택중 의장과 최인선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탄소국경제도(CBAM), RE100 등을 통해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내 기후정책은 오히려 후퇴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기후가 곧 경제이며, 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가 곧 수출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들의 생존 과제”라며, “정부 정책이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이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한국RE100협의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확대 ▲RE100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전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정책 인프라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끝/



<사진> 2025. 05. 15.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한국 RE100 협의체 정책협약식